www.pref.hokkaido.lg.jp

# 아카렌가 통신

제 65호 2020년 6월 29일 편집발행인 국제교류원 김소현

요즘 일본에서는 다양한 시도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재택근무를 도입하였고, 정부는 뿌리 깊게 자리잡은 '도장 문화'를 재검토하는 움직임도 있었습니다. 또, '온라인 회식'이 활발하게 이루어짐에 따라, 사원들의 친목 도모를 위한 온라인 모임의 비용을 보조하는 기업들도 있다고 하니, 몇 달 사이에 참 급격한 변화가 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여러분께서 보시고 계신 이번 아카렌가 통신도 재택근무로 만들어진 결과물이랍니다.

## 홋카이도는 지금...

###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는 신홋카이도 스타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우리들의 삶은 예전과 같은 모습으로 돌아갈 수 없을 것이라고들 합니다. 하지만 장기화 되는 코로나 사태 속에서도 경제 활동은 지속되어야 하기에, 감염 확산 방지와 경제 활동을 병행하는 새로운 생활양식 도입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이에, 홋카이도에서는 '신홋카이도 스타일'이라는 방안이 제시되었습니다. '신홋카이도 스타일'은 우리들의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라이프 스타일과 비즈니스 스타일을 개혁하는 것으로써, 손씻기와 기침예절 지키기, 시설 설비의 소독·세정과 환기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기, 직원들의 건강 관리를 철저히 하기, 사회적 거리두기와 같은 사항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희 사무실에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비말 확산 방지를 위해, 책상에 투명 칸막이가 설치되었을 뿐만 아니라, 직원들은 회의 시에 좌석 간격을 확보하고,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 본인과 소중한 사람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모두가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 지역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노력

관광업과 농업, 식품 가공업이 경제규모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홋카이도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영향으로 지역 경제에 타격을 입었습니다. 외부와의 교류가 급격히 줄어들며 관광객 수가 크게 감소하였기 때문이지요.

신치토세 공항을 통해 외국을 오갈 수 없게 된 것은 이미 오래 전 일인데다가, 골든위크에는 국내선 항공편 예약률도 한 자리 수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각 지자체들은 침체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할 방안들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온라인을 통한 판매는 코로나바이러스 집단감염을 유발할 수 있는 '3밀(밀폐, 밀집, 밀접)' 리스크 없이도, 지역 상품들을 유통할 수 있는 수단으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올해는, 매년 3~5월경 전국 백화점 등에서 많은 인파를 동원하던 '홋카이도 물산전'도 온라인을 통해 개최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판매되는 세트 상품들은, 물건을 받아보기 전까지는 어떤 내용물이 들어있는지 알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주일 동안 약 만 건 이상의 주문이 쇄도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또한, 관광객들에게도 잘 알려진 홋카이도의 인기 토산품 '시로이 코이비토'를 제조하는 이시야 제과는 온라인 숍을 통해 '홋카이도 응원 상품'을 판매하여, 단 하루만에 완판이 될 정도로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도청에서도, 세계로부터 신뢰받는 홋카이도 식품 브랜드를 홍보하고, 식품관련 기업들의 판로 확보를 위해 농수산물과 유제품, 술 등의 상품을 소개하는데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홋카이도라는 지역과 이곳의 다양한 먹거리들을 좋아해 주시는 분들이 많다보니, 저도 홋카이도에 더욱 애착이 가는 것 같습니다.

요즘은 여러 곳에서 '에이루'라는 단어를 접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성원, 응원'을 의미하는 영단어 'Yell'을 일본식으로 읽은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에 처한 전국 각지에 성원을 보내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더 나아가, 지역 활성화와 관련된 후루사토 납세에 대해서도 이야기 해볼까 합니다. '후루사토 납세'란, 지역간의 세수 격차를 해소하고, 지방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기부자는 본인이 응원하고 싶은 지자체에 기부를 하며, 지역의 교육, 관광 진흥, 스포츠 및 문화 진흥 등, 기부금의 용도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이전에는 많은 기부금을 유치하려는 지자체들로 인해 답례품 과열경쟁 현상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지역에서 생산된 제품으로만 답례품을 제한하는 등의 제도 개정이 이루어지고, 답례품 금액도 기부액의 30% 이하로 규제되었습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와 분투 중인 홋카이도의 의료종사자

응원으로 홋카이도에 힘을.
홋카이도 응원단 회의

홋카이도의 인기 답례품으로는 게, 연어알, 새우, 멜론 등이 있습니다.

한국에는 이러한 제도가 아직 도입되어 있지는 않지만,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자체 홍보로도 연결된다는 점에서 매우 유익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도청에서는 홋카이도의 다양한 과제들을 해결해가기 위해, 애향심을 바탕으로 앞으로 홋카이도를 응원하는 활동들에 참여할 수 있는 희망자들을 모집하여 '홋카이도 응원단 회의'를 조직하였습니다. 또한,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에 처한 홋카이도의 지역의료를 수호하는 '후루사토 기부금'의 모금을 개시했습니다. 단 2주만에 1억엔(약 11억원)을 돌파한 이 기부금은 의료종사자들을 지원하고, 의료용 기자재를 정비하는데 사용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어려울 때 모두가 힘을 합쳐 위기를 타개하는 모습은 일본이나 한국이나 마찬가지인 것 같네요.

## 독특한 자동차 번호판

일본에는 '고토치(ご当地)'라는 단어가 붙은 상품들이 많이 보입니다. 라멘, 맥주, 온천 등, '고토치'는 특정 지역에서 유래하여, 고유의 지역색을 띠는 것들을 나타냅니다. 여행을 할 때 각 지역의 기념품점에 가보면, 지역 특색을 살린 다양한 상품들이 진열되어 있어, 이러한 마케팅이 잘 발달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게다가, 자동차 번호판도 각 지역별 버전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올해는 전국 17개 지역의 자동차 번호판이 새로 등장했고, 홋카이도에서는 올해 최초로 시레토코와 도마코마이 지명의 고토치 자동차 번호판이 생겨났습니다. 이 번호판의 교부는 5월 11일부터 실시되었습니다.

▴시레토코와 도마코마이 지역의 자동차 번호판

## 아침이 빠른 홋카이도

저는 4월부터 시차 출근을 하느라 일찍 일어나는 습관이 들었는데요, 한국이라면 아직 어두울 시간인 새벽 네시 반 경에도 해가 밝게 떠있어서 산뜻하게 아침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특히, 삿포로는 제가 지금까지 다녀본 일본 국내 다른 지역들보다 하루의 시작이 유난히 빠른 느낌이 들었는데, 일출 정보를 찾아보니 그것은 기분 탓이 아니었습니다!

삿포로 일출 일몰정보 (2020년 6월 15일 기준)
해 뜨는 시간 : 오전 3시 55분
해 지는 시간 : 오후 7시 16분

이러한 지역적 특징 덕분에, 홋카이도에서는 여름철에 동틀 무렵부터 부지런히 차를 타고 여행을 떠나면 정말 알찬 당일치기 여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홋카이도에서 가장 빨리 일출을 볼 수 있는 지역은 어디일까요?! 궁금해서 검색을 해보니, 네무로 반도에 위치한 노삿푸 곶이라고 합니다.
여기도 언젠가 한 번 가보고 싶네요!

✓ 아카렌가 통신 과월호 한국어판 바로가기
✓ 홋카이도 관광진흥기구 바로가기
✓ **편집 및 발행** 홋카이도 종합정책부 국제국 국제과
홋카이도 삿포로시 주오구 기타3조 니시6초메
TEL : +81-11-231-4111 FAX : +81-11-232-4303